



머리글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예수님의 영향력

+찬미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회원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을 정리하는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들 잘 정리하고 계시는가요?

남은 날들,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연초에 참 많은 계획과 다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정 사목활동 중에 의기소침한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 삶의 의미들이 쇠잔해가는 범죄피해자 가족들, 번번이 실패만 하는 출소자들을 보면서 “더 나은, 더 힘찬, 더 사랑스러운 삶을 살자!”가 저의 다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짐만 멋졌지, 저 역시 지난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목활동을 하다 때때로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고, 무의미하다는 느낌도, 앞이 짝 막힌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다짐대로 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첫 세상을 향해 눈을 떴을 때는 마구간 안이었습니다. 안락함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냄새나고 지저분할 뿐입니다. 머리로 가누기 전에 몸을 피해 달아나야 했습니다.

참, 그 시작이 우리네 인생만큼이나 고달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냄새 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을 경배의 장소로 변화시키십니다. 목동뿐만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들도 선물을 가지고 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은 경배의 장소가 되었고,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의기소침, 무의미, 짝 막힌 듯한 기분 - 모두 다 우리 인생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한다면 이 역시 새로이 변화됩니다. 의기소침은 의기양양이 되고, 무의미는 의미를 찾는 능동적 삶의 태도로 바뀌고, 짝 막힌 듯한 기분은 용솟음쳐 오르는 기쁨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나은 모습, 힘찬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기소침, 무의미, 짝 막힌 답답함 바로 그 한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힘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대흥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10월 26일(토)~27일(일) 대흥동 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강론을 통하여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는 “수용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생으로 보이고,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더 나아가, 그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욕심을 낸 것들이 그들에게 상처가 된 내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봉사자들이 나에게 하느님이다. 감옥이 답답하지만, 봉사자분들이 나에게 살아갈 이

유가 된다”는 수용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들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셔서 갇힌 이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대흥동 성당 김성은 신부님(前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4일(월) 파주 광탄에 위치한 전진성당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잃고 광탄 나자렛 묘원에 묻혀있는 사형수 형제들(총 22구)을 찾아 이들을 위한 연도와 기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먼저 세상을 떠나간 영령들 앞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하느님의 지향과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며, “어떠한 사건으로 처형당했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영령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

느님의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생 서울남부교도소 참관



11월 7일(목)에 2019년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생들이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정시설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될 교정시설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안정된 복귀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관에 도움을 주신 서울남부교도소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고 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

조부영 노엘라_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처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위령성월, 사형수가 묻혀있는 광탄 공원묘지에 내가 가고 있다니…….

산 사람 챙기기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쁘데….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은 매년 연고 없는 사형수 묘원에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구슬피 연도하고 미사하고 어렵게 이 세상 살다 떠난 영혼들을 위로하고 챙기십니다.

미친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요즘의 세상살이는 마치 바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루를 감사 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한 채 느낌 없이, 생각 없이 몸만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빈껍데기처럼 허하고 텅 비기가 일쑤인데요,

때마침 위령의 달을 맞이하여 그곳에 가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간의 진정성 있는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제 눈에도 보입니다.

이렇듯 많은 분이 자신의 온전한 하루를 묵묵히 쏟아 내시는 모습은 결국, 사랑이겠지요.

늦은 가을 광탄 공원묘지에 다녀오는 하루 여행에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위로가 이렇게 끊임없이 존재함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살아있는 자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잠시 머무는 이곳에서 당신의 지체로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라 헬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이 양 떼를 몰고 있었던 것(창세 29,10)을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영문 표기는 레이첼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형 에사우를 피해 간 타지에서 만난 첫 여자이며, 야곱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칠 년을 라헬의 아버지 집에서 노동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서는 칠 년이 야곱에게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창세 29,20)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자신이 결혼한 상대가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라헬을 얻기 위해 칠 년을 더 일합니다.

이토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었는데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이 야곱에게 “나도 아이를 갖게 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창세 30,1)라고 떼를 씁니다. 시샘과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남편도 할 수 없는 생명의 탄생에까지 지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야곱은 답답한지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오?”(창세 30,2) 모든 것을 자기의 뜻에 따라 통제하고 무엇이든 더 가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콕 꼬집고 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언니 레아는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가로챈 것으로는 모자라, 내 아들의 합환채까지 가로채려느냐?”(창세 30,14) 정말 야곱은 본래 레아의 것인데 라헬이 가로챈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일하였는데 아버지 라반이 풍습을 핑계로 레아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찌면 남편을 가로챈 것은 먼저 레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곱은 ‘누구의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기에 공허하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임신 촉진제로 쓰였다는 합환채의 덕인지 아니면 라헬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는지 라헬은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이름에는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 주셨구나”(창세 30,23)라는 의미에서 ‘치우다’와,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창세 30,24) 하는 의미에서 ‘보태다’의 두 가지 뜻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수치를 없애주셨으니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간 욕심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만일 진실로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치워주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우리나라오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라헬은 그보다는 ‘하나 더’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신에게 기웃거립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을 훔칩니다. 이 종교에도 기웃, 저 종교에도 솔깃합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가고 물신에도 빠져 있는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 더’의 욕심 때문인지, 라헬은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벤 오니라’라고 붙입니다(창세 35,18). 라헬이 숨을 거두면서 붙인 이 아들 이름의 뜻은 ‘내 고통의 아들’입니다. ‘하나 더’의 욕심의 끝이 ‘고통’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라헬이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라헬에게 보이는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가진 것을 점점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자신의 몸종을 이용하기도 하고 합환채를 가지려고도 했으며, 미신에도 기웃거립니다. 창세기에 적혀 있는 라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산, 권력, 명성을 유지하고 더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각종 의약품, 뜸소문이나 사이비 종교들에 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우산을 나눠주는 곳 : 기쁨과희망은행

22기 교육생 신OO

교육을 마치는 날, 비가 옵니다.

저는 화려한 우산을 좋아했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남들 눈엔 환하고 밝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한 번도 우산이 없거나 고장 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 우산이 없어 비까지 맞아야 한다면, 온몸이 얼어붙어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를 저와 함께 걸어가던 그 사람들…….

저의 화려한 우산을 잃고 태풍이 몰아치는 시간을 걸어 나오고서야 제 바로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찬 비바람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는 길 위에서 우산을 나눠주는 곳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오니 저처럼 비에 젖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왠지 마음이 갑니다.

비록 우산이 여기 모인 사람 수만큼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손에 들려 비를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산을 일찍 못 받더라도 돌아올 우산을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 낙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비 내리는 길을 걸을 때 우산이 없는 분들과 눈이 마주친다면 이제 ‘함께’ 비를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 너무 신이 납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그러나 우산 없는 이와 함께 비를 맞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달란트를 제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운 마음으로 우산을 만들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오려는 것일까요? 바람끝이 제법 차갑게 느껴집니다.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10월 여주로 다시 이감을 왔어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것이지만 집회시간에 수녀님도 뵐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수녀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안쓰럽게 여겨주신 덕분에 아무 탈 없이 11월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내다가 수녀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출소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졸렬한 글로써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저의 처지가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수녀님을 만났더라면 이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수녀님.

수녀님께서 저를 살피 주셨던 그 이유를 잘 알기에 이제 두 번 다시는 방탕한 생활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며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 수녀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런데 수녀님 주님 안에서 죄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면 수녀님께 음식 대접 한번 할 수 있는 날도 있겠지요?

수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녀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잘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2019. 10. 28

마OO 올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여주교도소로 이송 간 형제가 미리암 수녀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 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월 6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0/13~11/12)

10월~11월에는 대흥동 성당 86명의 교우, 새빛, 박미경 소화데레사, 오희숙 알로이시아, 한연단, 김건화 자매님, 박성춘, 김정수 형제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대흥동 성당, 익명의 기부자, 김정자 루시아, 김미희, 이수정 데레사 자매님, 권남현 젤마노, 김봉태 즈가리야 형제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12월 2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2월 7일(토)~8일(일) 방배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방배동 성당
- 12월 14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2월 20일(금) 서울구치소 최고수 성탄 미사 / 서울구치소
- 12월 각 교정시설 세례식



안동교구 교정사목 물품 판매

▶ 사과 1BOX

(40~42과) ₩40,000	(36~38과) ₩45,000
(32~35과) ₩50,000	(28~30과) ₩60,000

▶ 사과즙 1SET(2BOX) ₩50,000

- * 택배비 포함 금액입니다.
- * 구입문의 : 안동교구 교정사목 054)874-2396
- * 계좌번호: 농협 737-01-082846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 수익금은 전액 안동교구 교정사목을 위해 사용됩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및 출력
2.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1월 초 일괄발송)
단, 기부금영수증은 본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있는 후원회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오니 연말정산 기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